

보도설명자료 (19. 7. 1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조선사 구조조정은 채권단의 판단사항임

(연합뉴스 등 7.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박지원 의원과의 면담시 채권단이 중소형 조선사의 통폐합을 검토한 바 없다는 산업은행 입장을 언급 하였습니다. 또한, 중소형 조선사 구조개편은 필요시 채권단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.
- 7월 18일 연합뉴스 <박지원, “대한조선 등 중소조선사 통폐합, 산업부도 반대”> 등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대한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 통폐합 관련,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정부가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힘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7.17일 박지원 의원과의 면담에서 “채권단에서는 중소형 조선사의 통폐합을 검토한 바 없다”는 산업은행의 보도해명자료(19.7.1)를 언급하였음
- 정부는 중소형 조선사 구조개편 등은 필요시 채권단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임

<첨부> 산업은행 보도해명자료(19.7.1)

<첨부 : 산업은행 보도해명자료(19.7.1)>



KDB산업은행 홍보실 공보팀
TEL 02-787-6072, 6075, FAX 02-787-6091
www.KDB.co.kr

보도해명자료
(2019. 7. 1)

제목 : 「정부관리 중소형조선 8개사 하나로 통합한다」 관련

□ 보도 내용 (19. 7. 1자, 헤럴드경제)

- 헤럴드경제는 '19. 7. 1(월) 「정부관리 중소형 조선 8개사 하나로 통합한다」 제하의 기사에서
 -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중소형 조선사를 하나로 묶은 통합지주사를 설립한 후 외부전문가에게 구조조정을 맡길 방침이라고 보도함

□ 해명 내용

- 산은은 상기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을 검토한 바 없으며 관련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. 따라서, 상기 내용의 기사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처: 산업은행 홍보실 백준영 팀장 (☎787-6072)
산업은행 구조2실 김형진 팀장 (☎787-3974)